

# 翟衣에 관한 通時的 考察

— 東京國立博物館 所藏品을 中心으로 —

金 英 淑

## 一、序 論

服飾에 관한 研究는 文獻에 나타난 記錄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實物의 考證이 調和를 이룰 때 보다 바람직한 結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理想的인 한 方法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 現傳하는 實物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現實的인 側面에서 볼 때는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服飾研究家들이 共通的으로 느끼는 難題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現단계에서는 現傳文獻의 정확한 解釋과 推論에 의한 當代的 服飾을 再構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翟衣 역시 위와 같은 問題點에서 例外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本考도 服飾研究가 안고 있는 基本的인 問題點을 勘案하면서 翟衣의 全體的인 面貌를 살펴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朝鮮時代의 翟衣는 王妃·王世子妃의 大禮服으로 親愛·借老를 意味하는 翟紋을 織成한 袍를 말한다.

翟衣는 朝鮮時代 最高 身分의 女性服飾이었을 뿐만 아니라 上下 身分이 뚜렷한 階級社會에서 그들의 身分의 位置와 權威의 象徴으로 表象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服飾에 관한 意識은 때로 너무 지나쳐 奢侈 禁制의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翟衣가 비록 우리 固有의 服飾이거나 一般 大衆의 衣服은 아니었지만

最高 身分의 王妃·王世子妃의 大禮服이라는 점과 翟衣가 傳해지면서 朝鮮朝에서는 朝廷의 論議를 거쳐 여러 번 變改하며 着用되어 온 것이 事實이므로 이에 대하여 檢討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着점을 두어 本考에서는 翟衣의 構成과 그 變遷過程을 考察해보고자 한다.

實物의 對象은 東京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翟衣와 그 附屬品一切로 한다.

이 遺品은 現傳하는 王妃翟衣의 實物로서는 가장 完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筆者가 一九六三年에 一次로 調査한 바 있으며 그 후 二〇여 년이 경과한 一九八四年 七月에 二次 調査하고 다시 一九八四年 九月 一九、二〇日 양일간 三次 調査하여 마무리 되었다. 一次 調査 當時 촬영한 사진 자료 및 치수 등을 二、三次 調査에 의하여 比較해 본 결과 紗織物에 있어 伸縮이 약간 있었고(유물에 따라 길이가 1cm ~ 1.5cm의 차이가 있었음), 色相, 材質의 큰 變形은 없고 保存狀態가 극히 우수하였다.

## 二、翟衣의 構成

現在까지 남아있는 翟衣의 遺物은 世宗大學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遺品과 東京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遺品 등 두 가지가 있는데 世宗大 所藏品은 純貞孝皇后(一八九四~一九六六)의 遺品이고 東京國立博物館의 所藏品은 英親王妃가 一九二二年 純宗을 謁見할 때 着用한 遺品이다. 이들은 각기 皇后와 皇太子妃가 着用했던 것으로(增補文獻備考)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地位의 區分에서 오는 紋樣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翟衣에 있어서 世宗大 所藏 遺品은 평의 紋樣이 前後 各一二等 一五四雙이 織紋되어 있으며 東京國立博物館에 所藏된 遺品은 九等、一三二雙이 織紋되어 있다. 깃·소매끝·도련의 紅色緞에는 金織된 雲龍紋(皇后)과 雲鳳紋(皇太子妃)의 差異가 있다. 中單、蔽膝、大帶、綬、鳥等

의 差異點은 三章의 圖表와 같으며 霞帔, 青襪은 同一하다.

東京國立博物館 所藏의 翟衣는 光武 元年(一八九七)에 制定된 翟衣制度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翟衣와 附屬品의 形態 및 特色은 다음과 같다.

### 翟衣

앞판(圖 1) : 藍色 緋緞 바탕에 九等의 翟紋을 織成하고 소매에는 四等의 翟衣를 織成한 下段에 三個의 輪花紋을 一等으로 織成하였는데 소매와 앞길의 翟紋이 一直線을 이루고 있다.

翟紋의 사이사이에는 軟豆·紅·白·藍 등 四彩의 작은 花紋이 있으며 左右판의 평은 앞단을 중심으로 對稱을 이루고 있다. 평은 黃, 軟豆, 紅, 黑, 白, 藍의 여섯가지 색사로 織成되어 있고 앞의 평이 고개를 뒤로 하여 쌍쌍이多情하게 마주보고 있다.

깃들레와 도련·袖口에 約九cm 程度의 紅色緞을 내었다. 깃의 左右에 各一片의 雲紋·火焰紋과 두마리의 鳳이 織金되어 있는데 봉의 형태는 긴 꼬리를 느리고 위를 향하여 나는 날친한 모습이다. 도련·袖口에도 같은 형태의 雲紋·火焰紋·鳳紋이 織金되어 있다.

뒷판(圖 2) : 앞판과 같이 九等으로 翟紋과 小輪花가 織成되어 있는데 등솔을 중심으로 左右의 평이 마주보고 있다. 補의 중심과 좌우·등솔 끝에는 홍색의 작은 고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霞帔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 같다.

### 翟衣의 附屬品

補 : 가슴·등·양 어깨에는 龍紋이 수놓인 五爪龍의 圓形補가 附着되어 있다. 翟衣의 襟과 같은 藍色 비단 바탕에 金絲로 圓形의 가선을 나타내고 중앙에는 金絲로 수놓은 龍이 正面을 향하여 위엄있게 배치되어

中單(圖 3) : 灰色의 無地絲로 織成한다.

노란색·도련에 홍색

絹織으로 된 襪이 들려 있고 고름 역시 홍색 絹織이다. 깃에는 黻紋 하나를 織金하였으며 양 겨드랑이에는 속바대를 내었다. 圖 三은 中單에 翟衣를 포개놓은 狀態이다.

首飾(圖 4~圖 18) : 大禮服에 着用하는 冠은 皇太子妃의 경우 九翟四鳳冠이다. 이 九翟四鳳冠은 <增補文獻備考>의 光武元年(一八九七)의 기록에 그 構成과 裝飾品을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形態의 遺品은 現傳하지 않는다. 當時의 九翟四鳳冠을 살펴보면 「漆竹絲로 圓匡帽을 만들고 翡翠로 위를 裝飾하되 翠翟가 아홉 金鳳이 넷이며 모두 입에 珠滴을 물린다. 翠雲이 四〇片이고 大珠花가 九樹이다. 小珠花는 大珠花의 수와 같은데 雙博鬢에는 鸞鳳으로 裝飾하고 珠滴을 드리우고 翠口圈이一副이며 위를 구슬로 꾸민다. 寶鈿花가 아홉인데 翠鈿이 그 수와 같으며 掩裏金口圈이一副, 珠翠面花가 五事, 珠排環이一對, 皂羅額子가 一描, 金龍文用珠가 二顆이다」①. 이처럼 冠에 대한

記錄만이 있을 뿐 實物이 없으니 確認하기는 어렵다. 博物館에는 九翟四鳳冠 대신에 머리를 裝飾했던 大首의 附屬品 一切가 保存되어 있다. 首飾에 사용된 부속품들을 보면 앞꽃이 一개, 金織머리帶 一개, 鳳簪 三쌍, 玳瑁 三개, 加蘭簪 一쌍, 眞珠簪 一개, 金簪 四개 등이다.

앞꽃이(圖 4)는 白玉板에 도금한 금속을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총길이 三三cm의 大簪이다. 葉形의 백옥판에는 鳳凰·壽字·唐草紋을 조각하였고 다섯개의 진주와 청·홍의 玻璃 五개를 장식하였다. 이 보석 장식은 앞뒤 똑같이 되어 있다. 이것은 머리 맨 앞상부에 치솟듯이 꽂는다.

金織 머리帶(圖 5)는 紅紗羅에 牧丹紋이 金織되어 있으며 길이 七四, 五cm, 폭 四, 五cm 이고 겹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一개의 玳瑁 장식(玳瑁는 없음)이 부착되어 있는데 한쪽 끝에서 八三cm 떨어진 곳부터 七cm 간격으로 一〇개가 부착되어 있고 다시 一〇cm 간격을 두고 一개가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大首를 하고 앞에서 뒤로 돌려 장식한다.

眞珠簪(圖 6)은 길이 二〇cm의 金簪의 簪頭に 五개의 진주를 장식했

다. 이는 머리앞 下部 中央에 꽃는다.

鳳簪은 모두 三쌍인데 大·中·小로 구분된다. 大鳳簪 一쌍(圖 7, 8, 9)은 총길이 二·三cm의 大簪인데 簪頭에 白玉으로 鳳의 형체를 조각하여 장식했다. 玉으로 조각한 鳳의 날개·머리·꼬리 등에 투조한 얇은 금속을 붙이고 진주와 七寶·玻璃 등으로 장식했다. 입에는 두개의 珠滴을 물렸다. 또한 簪頭와 胴體의 연결부분에도 진주·칠보·玻璃 등으로 장식했다. 전체가 극히 호화로운 느낌을 주며 조각이 섬세하여 예술적 가치를 느끼게 한다. 이것은 앞꽃이 좌우에 鳳이 앞을 향하도록 꽃는다.

中鳳簪(圖 10)은 총길이 二·三cm의 金製비녀다. 簪頭에 양날개를 퍼고 날고 있는 鳳의 형체를 조각하여 부착했고, 鳳의 양날개 꼬리에 각각 진주 二개씩을 장식했고 꼬리 중앙엔 玻璃를 장식했다. 胴體가 길어 날렵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며 大首의 下部를 배를 둥글게 말아 올린 좌우에 가로로 鳳凰이 얼굴 좌우에 오도록 꽃는다(그림 17, 18, 19 참조)

小鳳簪(圖 11)은 총길이 二·〇cm의 금제 비녀로 鳳의 형체는 中鳳簪과 같으며 胴體와 簪頭의 연결부분엔 紅玻璃 一개와 靑玻璃 二개를 장식했다. 이것은 이마 위에 꽃는 진주잡의 좌우에 꽃았다.

멸잡은 모두 三개가 있는데 花形의 玉板에 장식한 것이 一쌍, 나비형의 玉板에 장식한 것이 一개이다. 花形의 玉板에 장식한 멸잡(圖 12)은 지름 一·二cm의 圓形 玉板에 花紋을 투조하였고 진주 五개, 紅玻璃 二개, 靑玻璃 三개를 장식했고 멸새는 一〇개가 부착되어 있다. 색깔의 조화와 섬세한 조각이 뛰어나다. 이것은 정면 上部 좌우에 꽃는다. 나비형태의 멸잡(圖 13)은 玉板(七·七×四)에 나비형태를 조각한 후 그 위에 진주 四개, 멸새 二개, 紅玻璃 一개를 중앙에 장식했다. 금속 꽃이의 길이는 六, 九cm이다. 이것은 花形 멸잡의 중앙에 꽃는다.

加蘭簪(圖 14) 一雙은 총길이 二·九cm이며 재료는 금속이다. 簪頭에는 花紋을 七寶로 장식했다. 簪頭의 길이가 四, 七cm로 큰편이며 정면 우측에서 좌로 나란히 꽃는다.

金簪 四개(圖 16)는 같은 형태로 총길이 一·五cm의 순금제 珉簪이라.

이것은 加髻 뒷면에서 머리가 흘러지지 않도록 좌우 두개씩 꽃았다. 大首는 어깨까지 내려오게 하고 뒷머리를 양쪽으로 나누어 끝을 둥글게 말아 올리고 鳳簪으로 裝飾한다. 뒷머리 中央은 머리술이 많은 땡은 머리가 있고 상부에 또다른 加髻를 엮고 땡기를 맨다.

以上 首飾品과 加髻로 裝飾한 大首가 圖 17, 18, 19이다.

金織大欄치마(圖 20) 一紫 色 金織花紋綴으로 되어 있다. 鳳紋·雲紋·三山·波濤·火焰紋이 발이 곱게 金織된 스란단이 있다. 특히 스란단의 鳳凰紋은 中央에 三山과 波濤紋·火焰紋을 두고 한쌍의 鳳凰이 마주보고 날고 있으며 새끼봉이 뒤따라 날고 있다. 치마폭은 五폭으로 되어 있는데 一폭의 넓이는 六八, 五cm이다. 안단과 양옆은 藍色段을 六cm 넓이로 내었으며 홀치마이다.

藍大欄치마(圖 23) 一藍色 生庫紗로 된 大欄치마이다. 鳳凰紋·火焰紋·雲紋이 金箔되어 있는 스란단이고 안감은 白色 無紋絹이다. 스란단의 폭은 上部의 것이 二·六cm, 下段의 것이 一·九cm이다. 길폭은 四폭 반(一 폭은 七·四cm), 안폭은 八폭 반(一 폭 三·三cm)이다. 총길이는 一·四〇cm이다.

裳(전행헛치마·圖 25) 一翟衣의 안에 입는 치마로 博物館에는 두점이 保存되어 있다. 각기 藍色緞과 藍色紗로 만들어 材質의 차이가 있으며 紗로 된 것이 약간 작다. 그밖에 형태·문양은 同一하다. 藍色緞으로 만든 裳은 세폭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九·四cm의 허리단에 붙였다. 각 폭에 잔주름이 〇·五cm 넓이로 三二개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잡혀 있으며 양옆단은 六, 五cm ~ 七cm이다. 스란단은 金織으로 되어 있으며 下段에 一三, 五cm, 또 一四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二·二cm의 스란단이 있다. 문양은 壽福紋, 石榴紋, 不老草, 多男 등이 織金되어 있다.

길이는 좌우진폭이 一·四〇cm, 중간폭이 一·二八, 五cm이고 너비는 각기 三·〇cm 안팎이다. 착용시는 중앙의 짧은 폭이 앞에, 좌우의 긴 폭이 양허리에 놓이도록 입는다.



圖1 翟衣前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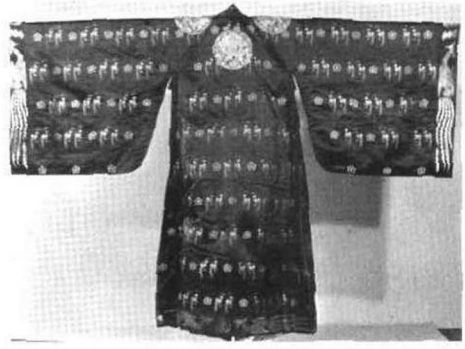


圖2 翟衣後面



圖3 中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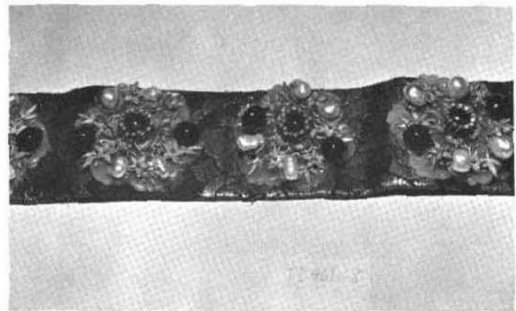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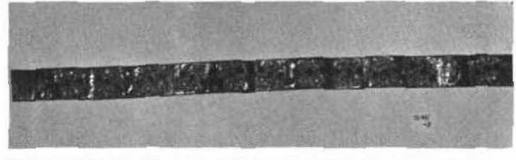


圖5 金襴 머리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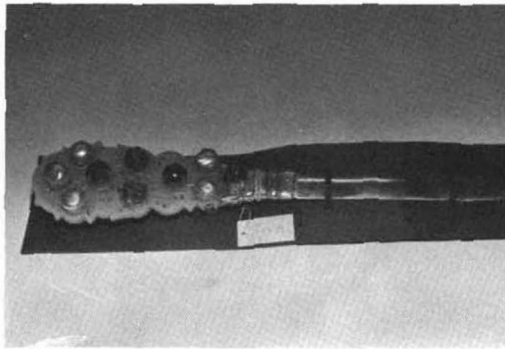


圖4 앞꽃이



圖7 鳳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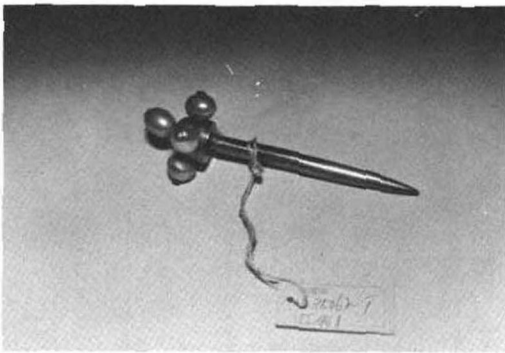


圖6 眞珠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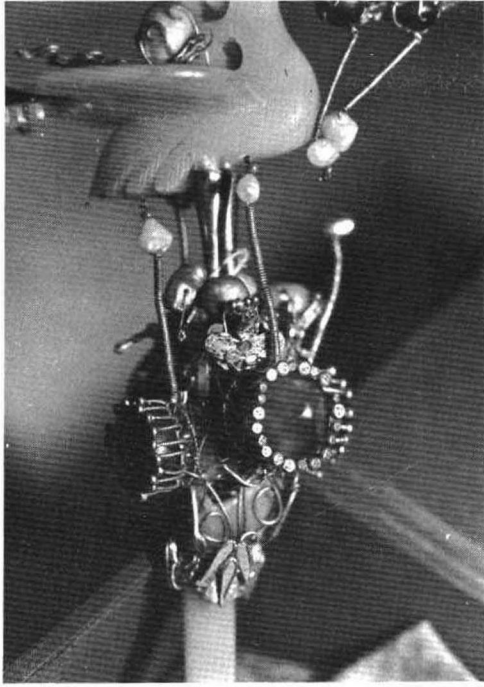


圖8 鳳簪 部分



圖9 鳳簪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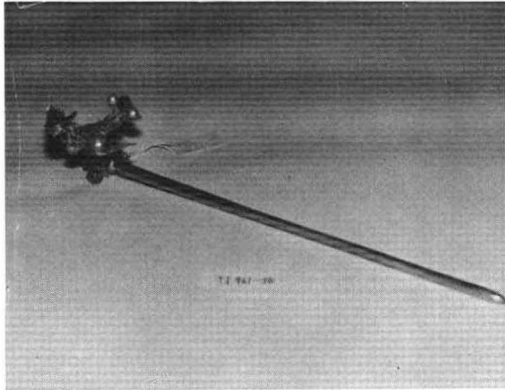


圖10 鳳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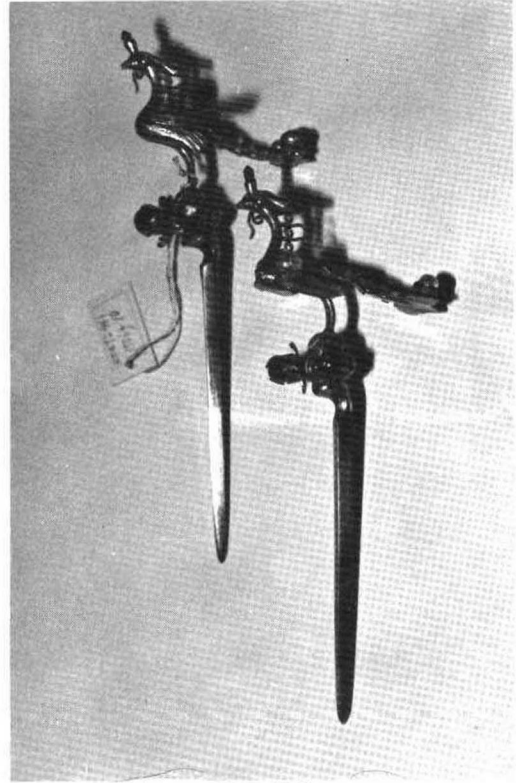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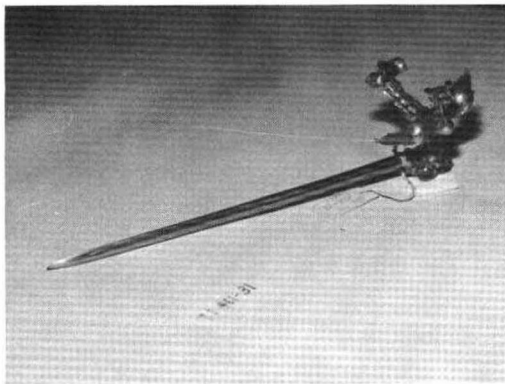


圖11 鳳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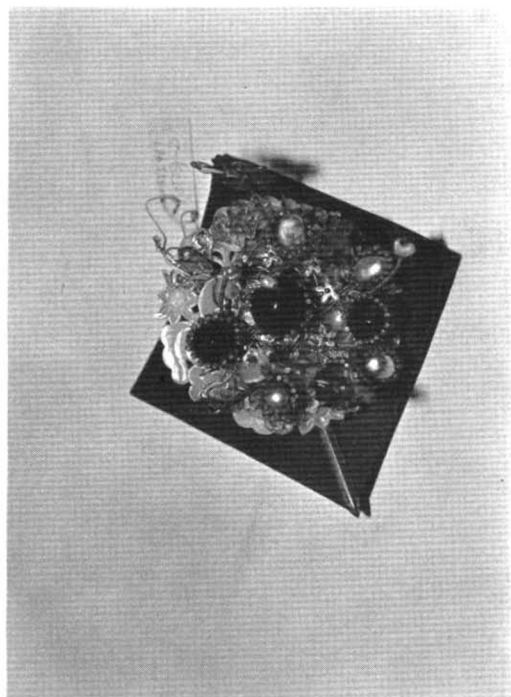


圖12 花形달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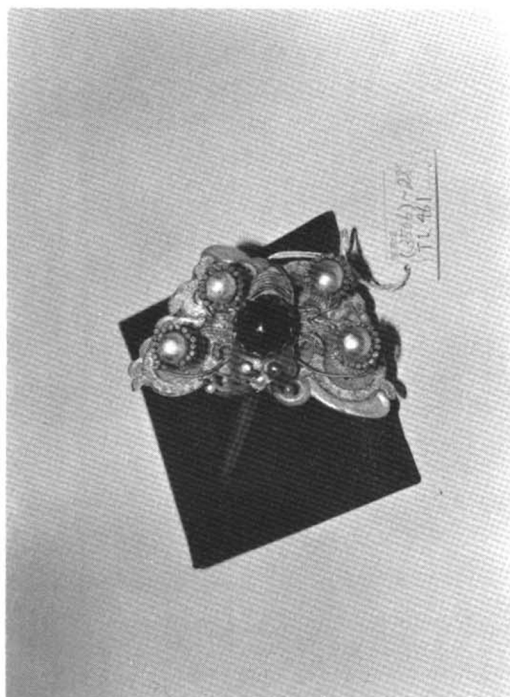


圖13 나비형 달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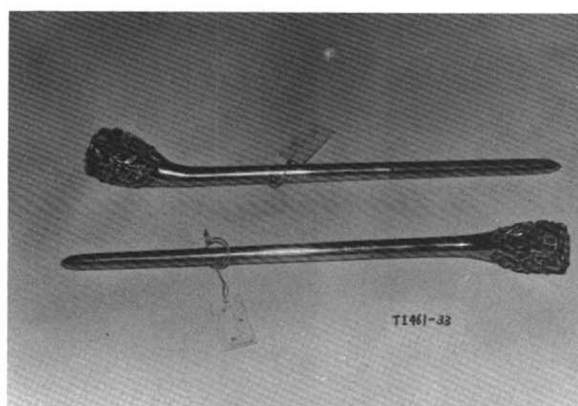


圖14 加蘭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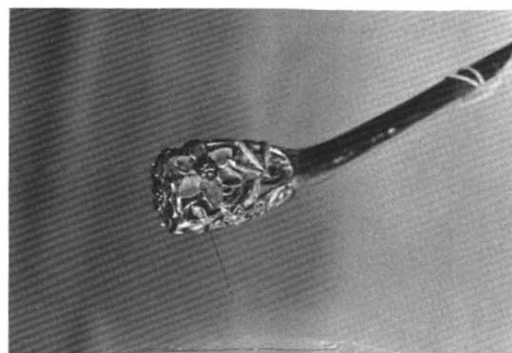


圖15 加蘭簪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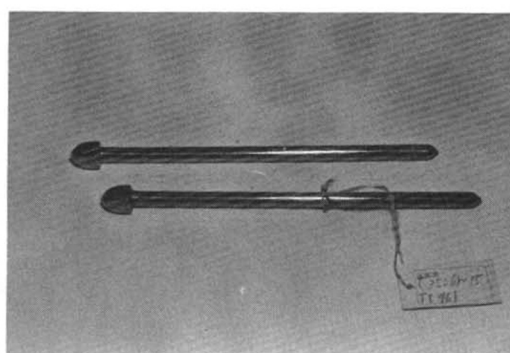


圖16 金簪



圖17 大首裝飾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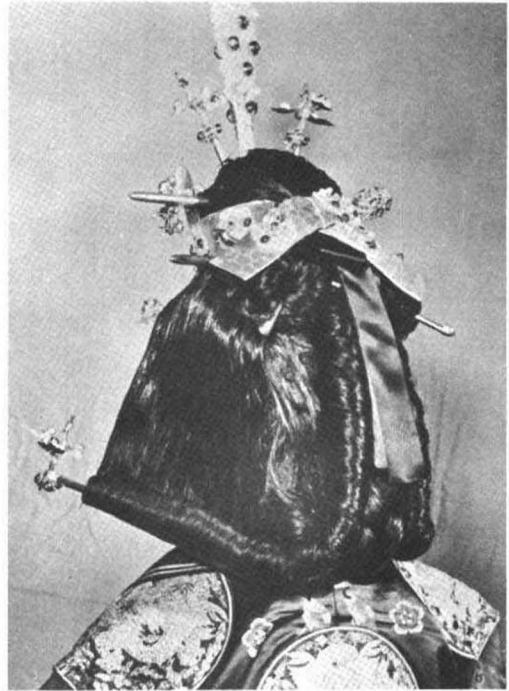


圖18 大首裝飾 左



圖19 大首裝飾 右



圖20 大襪치마



圖21 스란단의 金織紋

蔽膝(圖26) : 藍色 緋綴 바탕에 二等으로 나누어 각 두 쌍씩의 翟紋이 織成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여섯송이의 小輪花를 三等으로 配置하였다. 特히 翟紋은 좌우 쌍이 대칭이 되도록 짜여져 있으며 각기 마주보는 形態다. 돌레에는 紅絹로 된 襖을 대었는데 上·下·左·右에 각각 火焰紋과 한마리의 鳳紋이 정교하게 織金되어 있다. 홍색 襖의 돌레에 바탕색과 같은 좁은 加襖을 두르고 上部의 좌우 두개의 끈에 최고리가 연결되어 있어 大帶앞에 걸어 무릎 앞으로 느리우게 되어 있다.

大帶·後綴(圖27) : 大帶에 後綴가 부착 되어 있으며 翟衣를 입은 후 뒷 중심에 後綴가 놓이고 白色 大帶가 양 옆에 오도록 뒤에서 앞으로 퍼들매게 되어 있다. 大帶는 겹으로 되어 있는데 길감은 白色 紋綴이며 돌레에 玉色絹로 된 좁은 加襖을 들렀다. 안감은 紅絹이다. 大帶의 끈은 藍色 無紋絹이며 끝에는 同色の 술을 六cm정도 달았다. 後綴는 紅·白·藍·綠의 네가지 色絲로 짜서 만든 올이 굵은 견직물인데 縱絲는 紅·綠·藍·白의 順으로, 橫絲는 白·藍·綠·紅의 順으로 짜다. 아랫 쪽에는 七cm정도의 網繡를 연결하고 그 밑에 一六cm정도의 술을 늘렸는데 網繡의 양면 가장자리(圖28)는 나머지 組絲로 촘촘하게 平織으로 되어 있으며 網과 술의 연결 부분은 組絲를 뒷쪽에서 접어 올려 꿰맨 후 다시 밑으로 술을 내렸다. 위의 양쪽에는 두개의 金環이 부착되어 있다. 본래 後綴와 大帶는 별개의 것이었으나 國末에 와서 같이 연결하였으며 後綴의 경우는 王이나 百官의 朝服·祭服에 착용하였으며 품계에 따라 문양을 달리 했는데 본 後綴에는 문양이 없으며 王妃의 後綴로는 유일한 것이다.

佩玉(圖29, 30) : 한 쌍의 佩玉이 원형대로 保存되어 있다. 총길이 七二cm, 폭 一〇cm 정도의 紅·白·藍·黑·綠의 색동 絹織物에 매듭으로 網繡를 맺고 술을 늘린 小綬위에 부착되어 있다. 網의 좌우는 組織絲로 감싸서 접어 실로 꿰맸기 때문에 언뜻 보아 별도 실로 꿰맨 느낌이 든다. 小綬의 裏面(圖30)은 紅色 雲紋紗이다. 佩玉은 白玉구슬로 여러 형태의 白玉裝飾을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多樣하다. 上段에 있

는 珩은 폭 一〇cm, 높이 五cm이며 여기에 구슬을 켜 三개의 줄에 의해 연결된 珉는 폭 五, 五cm, 높이 五cm 정도이고, 그 밑에 연결된 珉는 폭 六, 七cm, 높이 五, 四cm이다. 여기에 다시 衝牙와 二개의 璜이 있다. 또한 珩에서 연결된 두개의 玉板에 玉花, 玉滴이 달려 있다. 이 玉滴, 璜, 衝牙 등이 서로 부딪혀 걸을 때마다 소리를 낸다. 각 玉裝飾은 紋樣이 없는 珉玉이다. 그러나 《五禮儀》, 《大韓禮典》등의 문헌에는 雲鳳紋을 描金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본다. 그러나 이 佩玉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王妃의 佩玉이라는 데 가치가 있고 그동안 文獻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霞帔(圖31) : 黑綴에 분홍색 無紋 絹織으로 된 안을 넣어 만들었다. 길이가 五cm, 나비가 一〇cm이다. 鳳紋 二六개와 雲紋 二六개가 金箔되어 있다. 鳳은 中央에서 밖을 보고 있다. 돌레에 두줄의 金線을 들렀다. 중심과 양끝에서 一cm정도 올라간 부분에 다홍색 絨縵으로 맺은 단추가 달려 있다. 이 단추는 翟衣 뒷판에 부착된 고리에 각각 끼우게 된 것이다.

玉帶(圖32, 33) : 藍色 綴(翟衣色과 同一 안감의 後部는 玉色 紋綴임)으로 짜고 白玉으로 裝飾한 玉帶가 있다. 총길이 一m 一七cm이고 폭은 三cm이다. 정면과 측면에 금대를 한 白玉裝飾과 도금한 꽃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後面에는 역시 白玉裝飾이 六개 부착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四八cm, 세로 三cm 두께 〇, 四cm의 方形이며 각 玉은 조각하지 않은 珉玉을 사용하였다.

機(圖34) : 藍色 無紋綴을 사용하여 겹으로 만들었으며 五〇cm 정도의 끈이 달려 있다.

靑鳥(圖35) : 翟衣와 같은 藍色 綴으로 만들었으며 신의 뒤꿈치 윗쪽과 신술의 중간 양쪽에 검은 색 천으로 고리를 달았고 여기에 藍色 끈을 꿰어 발등에 매도록 되어 있다. 끈의 길이는 七, 五cm이다. 신술에는 검은색 線을 들렀으며 신코에는 검은색 絲花 二개를 달았는데 구슬을 한



圖22 스란단의 鳳紋 部分



圖23 藍大襪치마



圖24 大襪치마 金泊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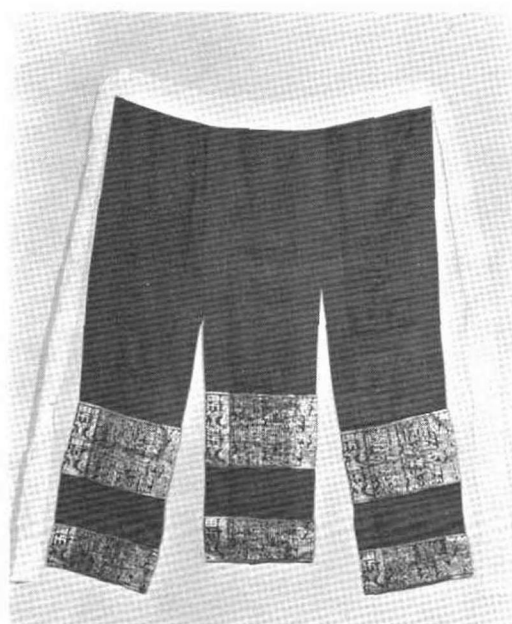


圖25 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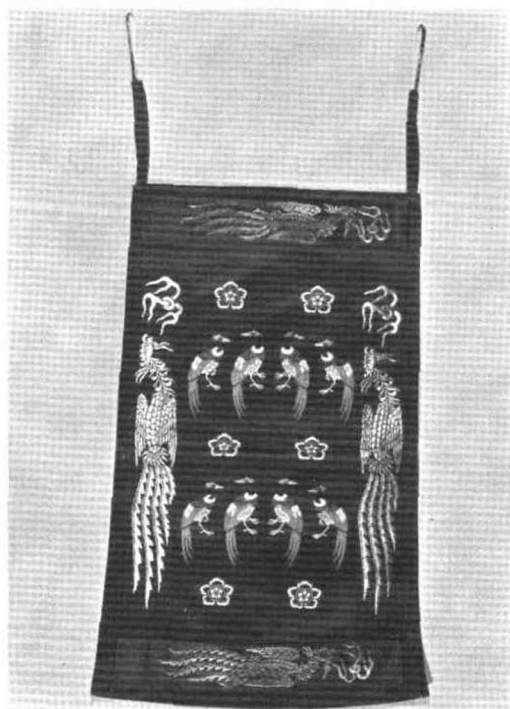


圖26 蔽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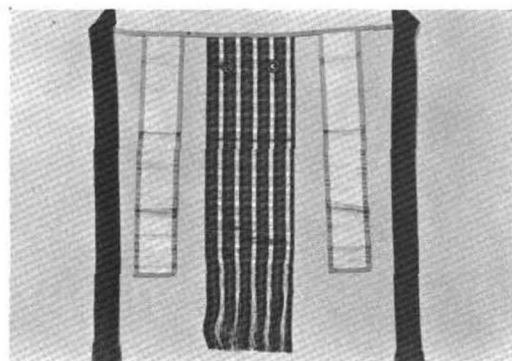


圖27 大帶·後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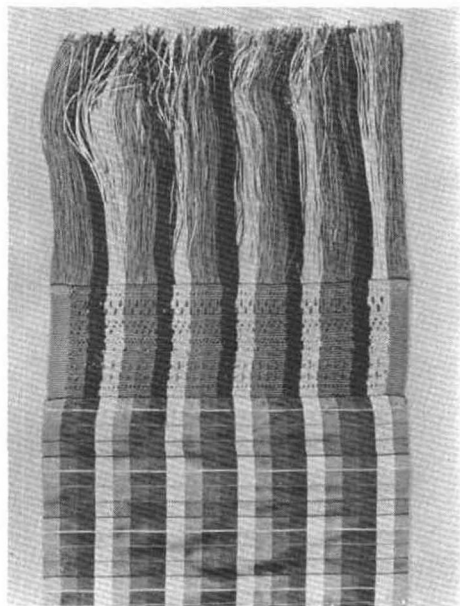


圖28 後綬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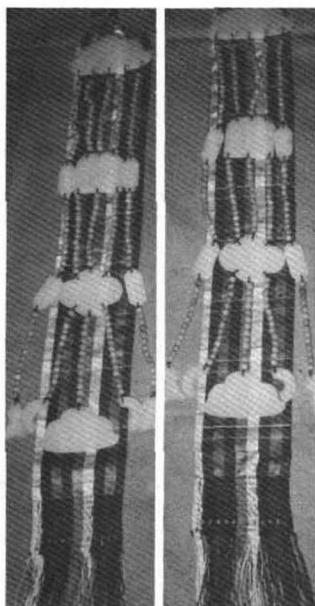


圖29 佩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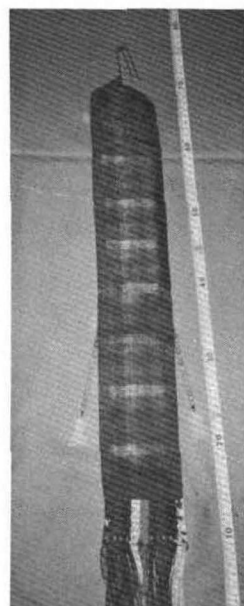


圖30 佩玉 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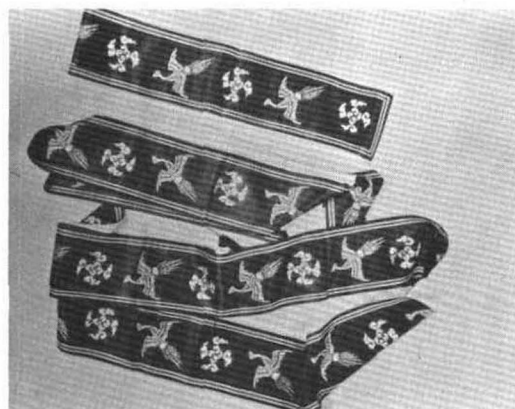


圖31 霞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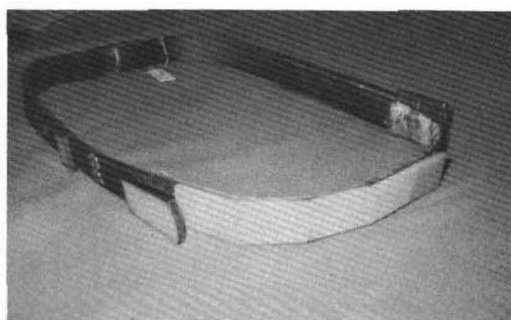


圖33 玉帶 後



圖32 玉帶 前



圖34 裙

개씩 넣어 網을 뜨고 수술을 달아 만들었다. 또한 신바다(圖36)外部에 軟豆色 棉絲로 매듭 七개를 맺었다. 신바다 중앙에서 뒷꿈치 쪽으로 약 四、五cm의 간격을 띄우고 상하에 정연하게 같은 크기의 매듭을 맺었는데 이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實用性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총길이는 二五cm이다.

玉圭(圖37)·총길이가 一四、五cm, 下端 너비 六cm의 白玉圭이다. (增補文獻備考)의 기록과 같이 穀紋을 새겼다. 上部가 山形을 이루어 등글고 下段의 五、四cm는 紅色緞으로 왔으며 동색의 주머니「韜」가 있다. 옷칠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이밖에 靑玉으로 된 圭가 하나 더 있는데 끝이 뾰족하고 紋樣을 새기지 않았다. 크기는 길이 一七、二cm, 폭 四、二cm, 두께 〇、九cm이며 下段의 六cm를 紅緞으로 왔다.

以上에서 說明한 것이 東京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翟衣와 附屬品들인데 이를 着裝한 것이 圖三八、三九、四〇이다.

이러한 服飾類는 翟衣만 하더라도 혼자 들기에 힘들 정도였으며 織組의 섬세한, 首飾物의 화려한, 附屬物의 多樣함과 思想性은 가히 服飾藝術의 극치라 하겠다.

### 三、翟衣의 史的 變遷

前項에서 說明한 翟衣의 構成이 現傳하는 翟衣의 基本型이라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形態의 翟衣가 있기까지는 많은 變遷過程을 거쳐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變遷過程을 살펴보기 위하여 文獻에 나타난 翟衣에 관한 事項을 整理하여 그 結果를 年代別로 對比시켜 보고자 한다.

翟衣制度가 처음으로 導入된 것은 高麗朝 恭愍王 一九年(一三七〇)에 明의 太祖 高皇帝가 王의 冕服과 遠遊冠服을 내려 주었고 孝慈皇后가 王妃에게 冠服을 賜與한데서 비롯된다② 이때에 賜與받은 王妃의 冠服은 冠·翟衣·中單·蔽膝·裳·大帶·佩玉·綬·靑鳥·靑機이었다. 冠

은 七翟二鳳冠이었는데 花釵가 九樹이고 小花는 大花의 수와 같고 양쪽 髻은 九鈿으로 꾸몄다. 翟衣는 푸른 바탕에 翟을 九等으로 수놓은 것이었다. 中單은 것에 黼를 수놓고 羅縠으로 선을 두르되 紅色으로 하였다. 蔽膝은 裳의 빛깔과 같으며 緞色으로 가에 선을 두르고 翟을 二等으로 수놓았다. 大帶는 옷 빛깔에 따랐고 革帶는 金鈎鏤를 하였다③ 여기서 注目되는 事實은 翟衣에 對한 說明이 簡約하다는 것이다. 卽 翟을 九等으로 靑色 바탕에 수놓는다고만 說明되어 있을 뿐 그 밖의 事項에 對해서는 說明을 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처음으로 明나라로부터 王의 冕服과 遠遊冠服을 下賜받은 事實은 高麗가 元의 支配에서 벗어났다는 歷史的 事實에 바탕을 둔 服裝의 變遷임을 알 수 있다. 勿論 우리 나라가 中國制度의 冠服制를 受用한 것은 이미 新羅의 眞德王 때부터이다④. 그러나 이때는 翟衣에 對한 記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事實은 高麗가 元의 開削辨髮과 胡服制度를 受用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時代 狀況을 背景으로 明制度를 受用한 意義를 (增補文獻備考)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大明當天文軌攸同 賜王冕服 王妃群臣 赤皆有賜衣冠 服飾煥然一新 使我東方 得免胡元 左衽之俗 復見禮樂文物之盛 誠千載盛際也⑤

이렇게 元의 左衽을 버리고 明의 制度를 受用한 것이 禮樂文物의 盛함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한 것은 服飾史의 變遷에 큰 意味를 지니며 이때부터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冠服制度는 明의 制度에 根據하게 된다. 따라서 恭愍王朝의 冕服下賜는 服飾變遷의 한轉換點을 이룬다. 翟衣에 있어서는 그以前에 뚜렷한 着用例가 없었으므로 恭愍王 때 賜與받은 翟衣가 朝鮮朝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朝鮮朝에 와서 翟衣가 下賜된 것은 太祖 三年(一三九四)이었는데 珠翠七翟冠과 霞帔, 金墜 등이었다⑥. 이때에는 宮中에서 翟衣의 着用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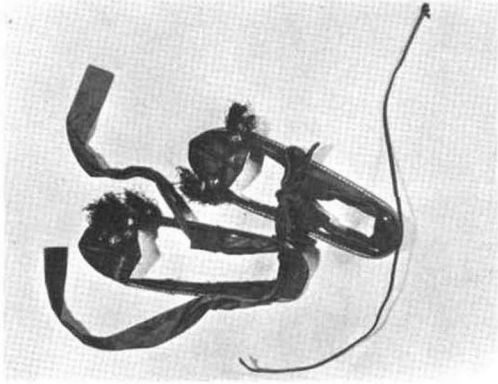


圖 35 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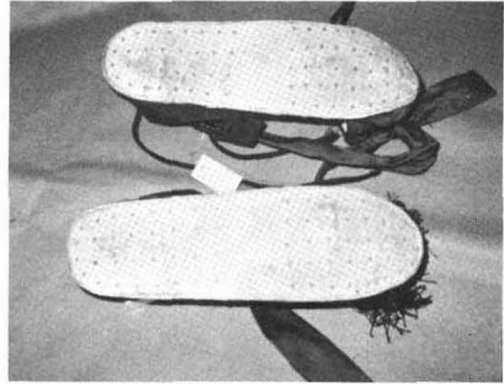


圖 36 鳥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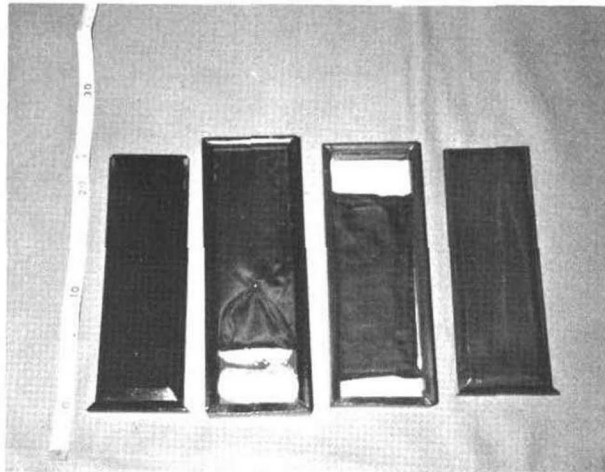


圖37 玉圭 함



圖38 翟衣着用 前



圖39 翟衣着用 後



圖40 翟衣를 着用한 英親王妃

을 알지 못하여 蜀國의 皇太后였던 彭氏에게 着用法을 알아 着用하였다 ⑦고 한다.

이것을 보면 이때에는 王妃의 冠服制度가 確立되지 못했거나 呼應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 하겠다.

朝鮮朝에서 衣服制度가 體系的으로 整備된 것은 世宗朝의 〈五禮儀〉에서이다. 이 〈五禮儀〉에서는 王·王世子·文武百官의 衣服制度만을 規定하고 있을 뿐 王妃의 冠服에 對해서는 言及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事實들을 通하여 이때까지도 翟衣는 뚜렷한 準則이 定立되지 않고 明制의 翟衣制度를 準則으로 定해 使用했던 것으로 推測된다.

宣祖 때에는 王妃의 翟衣가 賜與된 바 있으나 完全한 것이 못되어 〈嘉禮都監〉에서 論議하기도 하였다. 卽 冠과 帶에 關한 論難인데 冠은 九翟冠을 着用해야 되나 具備하기 어려워 〈五禮儀〉의 「翟衣加首飾」에 따라서 國俗으로 마련하였으며 大帶 또한 색깔의 決定을 보지 못하고 任意로 使用케 하였다 ⑧.

이러한 일련의 事實들은 지금까지 準則이 되어왔던 明의 翟衣制度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大帶에 있어서도 「大帶從衣色」이어야 함에도 이에 介意치 않은 것은 어느 정도 明代의 服飾影響圈에서 벗어나고자 한 意圖가 介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후 翟衣 製도가 提起된 것은 肅宗三十九年(一七一三)의 일인데 當時 肅宗은 〈五禮儀〉와 〈大明會典〉을 參考하여 百官의 冠服制度를 整備하면서 翟衣에 關해서도 言及한 바가 있었는데 當時의 翟衣 形態를 엿볼 수 있게 한다.

翟衣 五禮儀不言制度 以紅爲質 異於會典之青質 織文非翟 而似鳳前  
面六等後面九等 亦異於會典九等 冠不用首飾 異於會典九翟四鳳九翟等 ⑨

여기서 보면 肅宗 때에는 翟衣의 바탕을 紅色으로 하였고 무늬는 평이 아니고 鳳과 같으며 前面에 六等を 수놓았으며 後面에 九等を 수놓

았다. 또한 冠을 使用치 않아 〈大明會典〉의 九翟四鳳冠을 着用한 것과 다르다. 이러한 事實들에 對하여는 一且 言及에 그치고 있을 뿐 「明나라 制度를 確實히 알 수 없으며 中國의 緋緞 빛깔과 品質과 寸도가 우리 나라와 뛰어나게 다르므로 글과 그림에만 依據하여 고칠 수 없다」는 慎重論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論議는 英祖 때 刊行된 〈國婚定例〉에 反影되었다고 보는 데 〈國婚定例〉의 翟衣部分은 肅宗朝의 이 論議가 基準이 되었음을 말한다. 〈國婚定例〉에 밝혀진 中宮殿의 法服을 보면,

- 大紅鄉織翟衣
- 大紅鄉織別衣
- 大紅鄉織內衣
- 大紅鄉織蔽膝
- 草綠鄉織大帶
- 錦衣鄉織綾
- 冒緞霞帔
- 藍鄉織裳
- 大紅廣의 繡
- 紫의 羅面紗
- 大紅廣의 赤襪 ⑩

등과 같이 翟衣와 그 附屬品을 列擧하고 있다. 여기서 英祖가 〈國婚定例〉를 制定토록한 理由가 明確히 드러난다. 그것은 國民의 奢侈가 날로 甚하여 國民의 富華를 抑制하고 勤儉으로 이끌려고 하는 의도에서 翟衣는 勿論 모든 附屬品까지도 鄉織으로 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附屬品에 있어서는 別衣, 內衣가 添加되고 있으며 色彩는 翟衣, 別衣, 內衣, 蔽膝, 綾, 赤襪 등을 紅色으로 하고 있어 큰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英祖 때에는 〈國朝續五禮儀補〉가 編纂되어 王妃의 冠服을 整備하였다. 여기에 보면 翟衣의 具體的인 構成과 紋樣, 霞帔·裳·大帶·玉

帶·蔽膝·烏等に 具體的인 說明을 加하고 있어 翟衣制度가 定立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整備된 冠服을 보면 다음과 같다.

翟衣는 大紅緞으로 하되 前面의 左右가 서로 마주 對하여 곧게 내려가고 서로 덮이지 아니하며 길이는 치마끝과 가지런하고 뒤의 길이는 치마끝에 一尺남짓 길도록 한다. 翟衣 앞 뒤에 金絲로 수놓은 五瓜圓龍補를 붙인다. 앞면의 補 아래에는 수놓은 圓翟을 왼쪽에 일곱, 오른쪽에 일곱을 옷끝까지 붙여 옷단에 이르게 하고 左右에 各各 한 竪을 접어서 서로 連한 것처럼 붙인다. 또 뒷면의 補 밑에도 수놓은 圓翟을 왼쪽에 아홉, 오른쪽에 아홉을 각각 붙여서 옷단에 이르게 하고 또한 翟을 단 가운데서로 連한 것처럼 붙인다. 좌우 소매는 너비가 옷 앞길리와 같고 袖口의 緣면에도 수놓은 圓翟을 왼쪽에 아홉, 오른쪽에 아홉을 붙여서 그 수가 모두 五一個이다. 霞帔는 黑緞으로 길고 紅綃로 안을 하며 金絲로 雲霞 二八, 翟紋 二六을 그린다. 裳은 靑緞으로 하되 앞 세 폭은 짧은 데 이어서 꿰매고 뒷면 네 폭은 길게 하여 각각 두 폭씩 서로 덮이도록 하여 이어서 꿰맨다. 앞뒤에 襞積이 있고 가운데와 밑에는 織金龍을 벌려 붙인다.

大帶는 大紅緞으로 길고 白綾으로 안을 하며 綠緞으로 緣을 두른다.

玉帶는 玉을 彫刻하여 만들어진 靑緞으로 싸고 金으로 鳳을 수놓는다. 佩·綬·襪은 殿下의 制度와 같다.

蔽膝은 殿下의 蔽膝과 같되 수를 놓지 않는다.

烏은 殿下의 烏과 같은데 오직 烏끝에 붉고 푸른 絲花 셋을 붙인다 ⑩ 위와 같이 〈國朝續五禮儀補〉에서는 〈國朝續五禮儀〉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王妃·嬪宮의 服制를 補充하여 收錄하고 있다. 또한 〈國婚定例〉가 完成된 것이 英祖 二五年(一七四九)이고 〈國朝五禮儀補〉가 完成된 것은 英祖 二七年(一七五一)이니 〈國婚定例〉에 記錄된 事項들은 不過 二年 동안에만 施行된 것으로 把握된다.

특히 〈國朝五禮儀補〉에서는 世子嬪의 法服에 對한 規定을 定하였는데

首飾, 霞帔, 大帶, 佩, 綬, 蔽膝 등은 王妃의 制度와 같게 하였고 翟衣는 黑緞으로 하고 앞과 뒤에 金繡四瓜圓龍補를 붙인다. 옷의 제도과 수놓은 圓翟은 王妃의 것과 같아 差異가 없다. 裳도 王妃의 것과 같되 가운데와 아래에 金絲로 잔 붓을 벌려 붙인다. 玉帶는 彫刻하지 않은 玉을 使用하되 靑緞으로 싸고 金絲로 鳳을 수놓아 王妃의 것과 같게 한다. 襪은 黑緞으로 한다. 烏은 黑緞으로 길고 白羅로 안을 하는데 緞 끝의 絲花는 王妃의 烏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變遷은 最初로 王妃와 世子嬪의 翟衣에 差等을 두어 區分하여 說明하였고 翟衣에 圓龍補를 附着하게 하였으며 世子嬪의 翟衣 바탕색을 黑緞으로 하게 한 點등이다. 이 점은 王妃와 世子嬪의 差等に 있어서 禮의 等數에 의해 區分한 것과는 對照的이다. 또한 補는 男子의 大禮服에나 附着하였던 것인데 翟衣에 圓龍補를 附着하게 한 것도 이 時期의 特徵이다.

英祖 때 이러한 整理가 있는 後 다시 翟衣制度가 言及된 것은 惠慶宮 卽 憲慶皇后의 服色을 論議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翟衣의 색깔에 關한 論議가 있었다.

惠慶宮 所御翟衣 服色係是無例 紫有貳尊之嫌 黑無異制之意 若紅若藍 名有用處惟深靑一色 最近以此爲定 ⑫

이라하여 翟衣의 바탕색깔을 深靑色으로 하였는데 이 색깔은 〈大明會典〉의 翟衣 색깔과 같아 〈大明會典〉의 本意를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翟衣制度가 詳細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은 高宗 때의 일인데 高宗 自身이 淸과의 關係를 淸算하고 光武란 年號와 皇帝 稱號를 쓰기 시작하고 服飾制度를 制定하였는데 이는 中國과 同等한 皇帝의 位置로서 衣服의 制度도 變遷하게 됨을 意味한다. 光武 元年(一八九七)에 高宗은 〈大明會典〉을 根據로 翟衣制度를 다음과 같이 整備하였다.

皇后的 翟衣는 靑은 深靑色으로 바탕을 하되 翟紋을 織成한 것이 一二



等이고 그 사이에 小輪花가 있으며 紅色으로 깃, 소매끝, 도련을 하되 雲龍紋이 金織된 것을 쓰며 紵紗 紗羅를 形便에 따라서 쓴다.

中單은 玉色의 紗로 하되 紅色으로 깃·襟·褸·裾를 하고 깃에는 黻紋을 열셋 짜는데 혹은 線羅를 쓰기도 한다.

蔽膝은 옷 빛깔에 따라서 하되 翟을 짜서 章을 세등으로 하고 그 사이에 小輪花 넷을 하며 緞色으로 깃을 하고 金織 雲龍紋緞으로 가선을 두르며 紵紗·紗羅를 形便에 따라서 쓴다.

玉黻는 길이 周尺으로 七寸인데 그 위를 袍족하게 하고 黻紋을 새긴다. 누런 緋緞으로 그 아래를 싸뭉되 다른 金龍紋을 한 누런 袋鞞가 있다. 玉革帶는 靑綺鞞에 雲龍紋을 描金한 玉事가 一〇件, 金事가 四件이다.

大帶는 안팎이 모두 靑色과 紅色이 서로 반반씩이고 그 끝은 純紅色인데 아래로 부착된 것은 金으로 雲龍紋을 짠다. 위는 붉은 色으로 加線을 두르고 아래는 綠色으로 加線을 두르는데 靑綺副帶가 하나 있다. 綬는 다섯 가지 彩色으로 黃色·赤色·縹色·綠色이고 纁色으로 바탕을 한다. 그 사이에 두 玉環을 裝飾하였는데 모두 짜서 만든다.

玉佩는 두 개로 각각 玉을 쓰되 珩이 하나 珞가 하나 琚가 둘, 衝牙가 하나 璫이 둘인데 珉 밑에 玉花가 있다. 玉花 밑에 또 두 玉滴을 드리웠는데 雲龍紋을 새겨 꾸미고 描金한다. 珩에서 끈 다섯을 늘어뜨려 매고 玉珠를 꿰었는데 다니면 衝牙와 두 滴이 두 璫과 더불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 위에는 金鈎가 있고 小綬가 있는데 다섯 가지 色으로 알맞게 彩色한다. 五色은 黃·赤·白·縹·綠이며 纁色의 바탕에 짜서 만든다. 靑色으로 襪과 舄을 하되 襪은 靑色 緋緞으로 하고 舄은 靑色 緋緞을 쓰며 描金雲龍紋으로 꾸민다. 線과 純은 검은 것으로 하되 鳥의 머리에 구슬 다섯顆를 붙인다<sup>19)</sup>.

以上 恭愍王 때 翟衣가 導入된 후로 朝鮮 高宗 때까지의 變遷過程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앞 圖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翟衣의 바탕색은 肅宗 때에 紅色

을 使用하였으며 紋樣도 鳳紋을 앞면에 六等 뒷면에 九等으로 하여 差異點을 두었고 恭愍王 때 賜與받은 冠服에는 中單의 깃에 黻紋을 그려 差異點을 보여주고 있다. 蔽膝도 衣의 색깔을 따르고 있다. 또한 英祖 때부터 앞과 뒤에 五瓜圓龍補를 부착하였는데 이는 明 皇后, 皇太子妃의 親蠶服인 鞠衣에 附着하던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特異한 變形이다. 또 霞帔, 裳, 大帶가 添加되고 있는데 이는 明 皇后, 皇太子妃의 常服인 大衫에 着用하던 것이다.

#### 四、結 語

以上 言及한 事項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一、翟衣는 高麗朝 恭愍王 때 처음 賜與되었는데 이는 明制의 것이라 기 보다는 元의 制度에 依據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는 恭愍王의 冕服 奏請이 洪武 二年이었으며 이 때는 아직 明의 冠服制度가 整備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이다.

二、翟衣의 바탕색깔은 肅宗 때 紅色으로 바뀌어 英祖 때까지 이어졌고 高宗 때 다시 靑色으로 制定되었다. 숙종조의 紅色은 〈大明會典〉이 一五六九年에 完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背馳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三、紋樣에 있어서는 肅宗 때 鳳紋으로 바뀐 적이 있으나 翟紋을 固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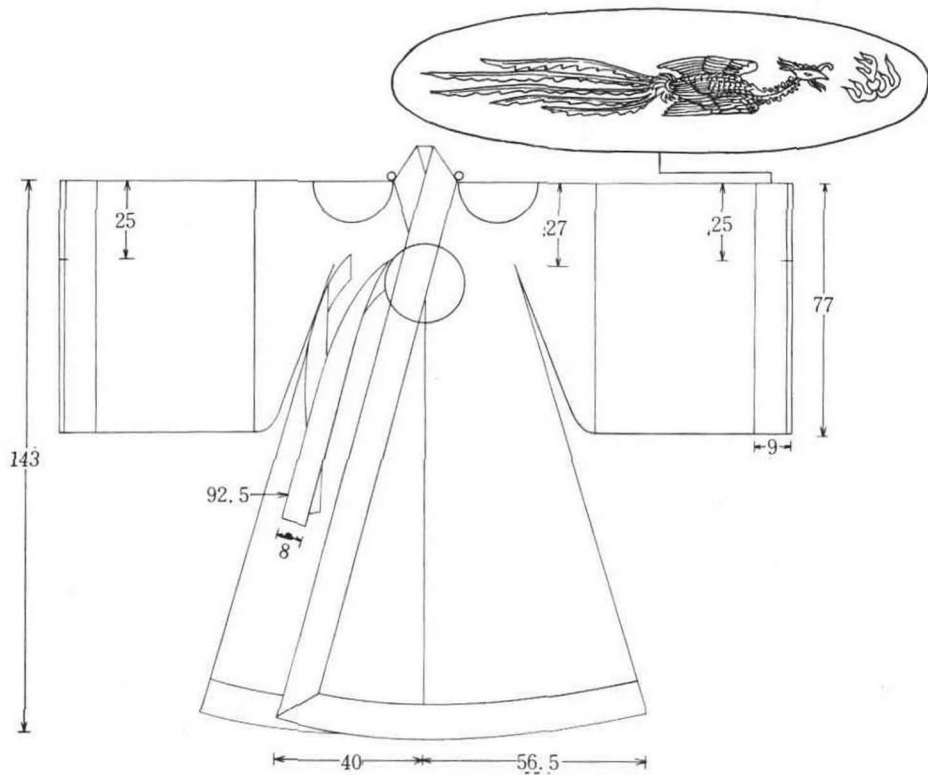
四、中單은 英祖 때 內衣·別衣 등으로 名稱이 바뀐다.

五、補·霞帔는 英祖 때 添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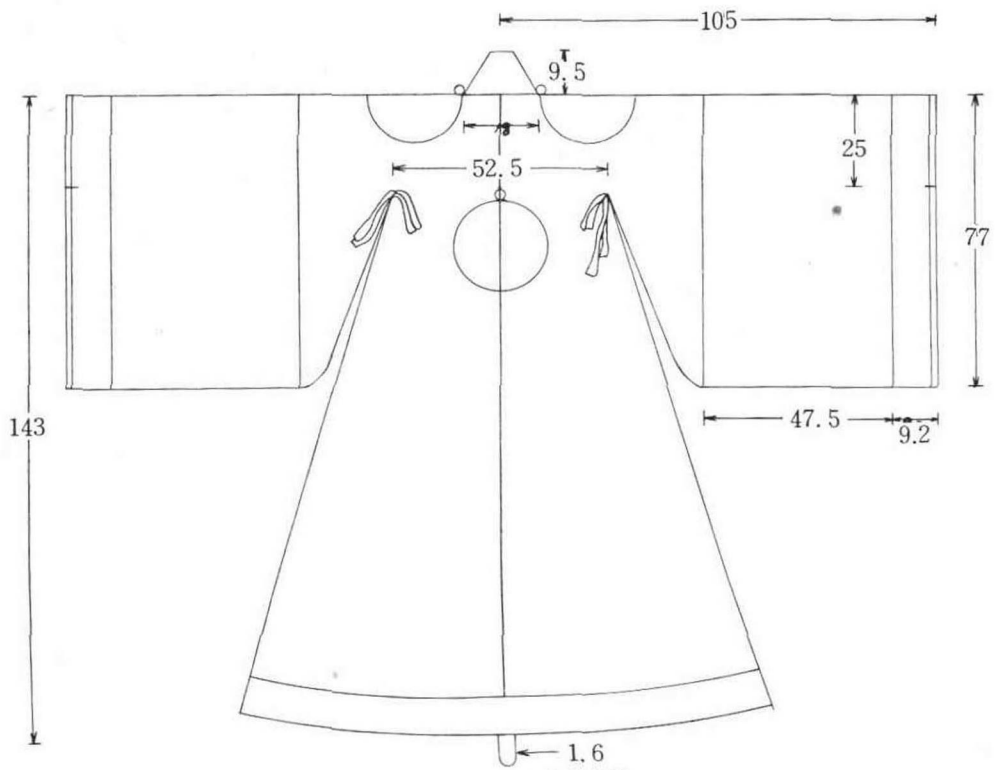
六、襪·舄은 變遷이 없으나 단지 英祖 때에 世子嬪은 黑緞으로 하도록 했다.

七、英祖 때는 翟衣의 材料를 鄉織으로 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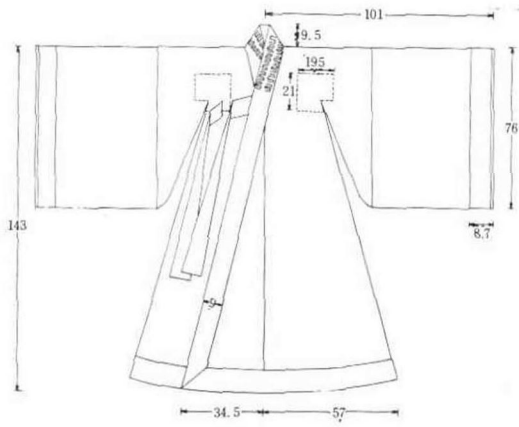
八、高宗 때 年號를 光武로 고치면서 制定된 翟衣制度는 〈大明會典〉을 참고로 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制度上의 差異는 있으나 大概 그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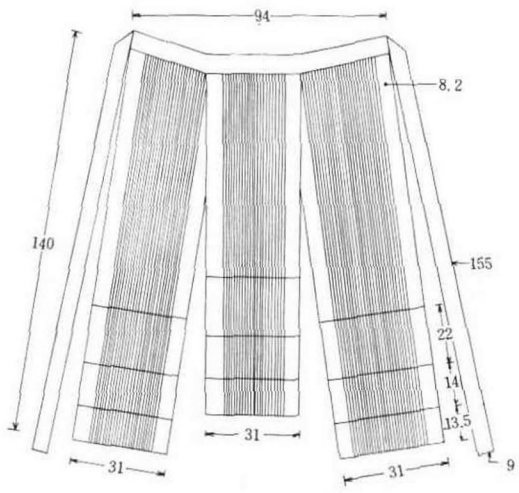
(圖 1 - 1 翟衣前面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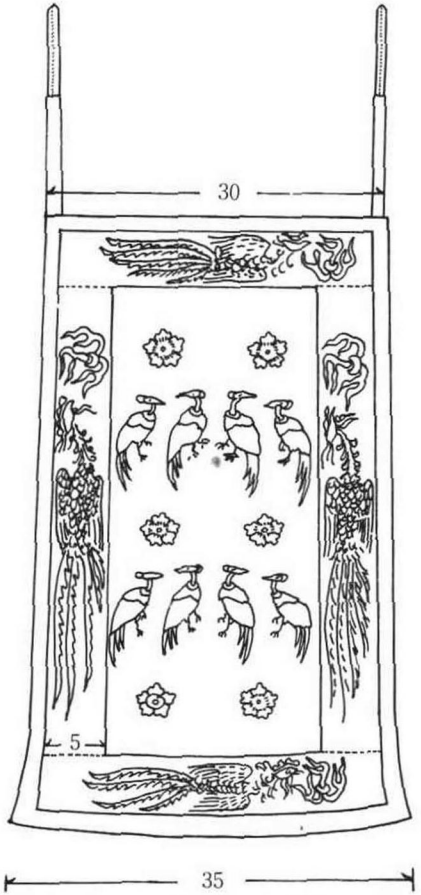
(圖 2 - 1 翟衣後面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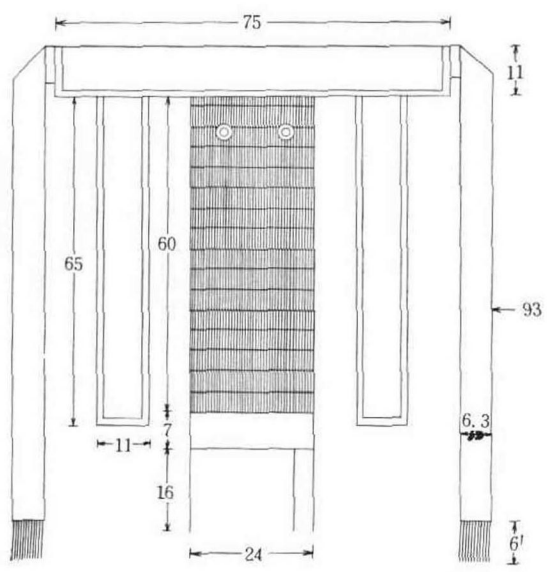
(圖3-1 中單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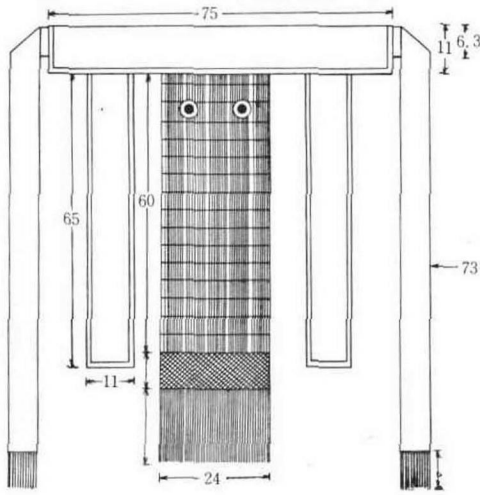
(圖25-1 裝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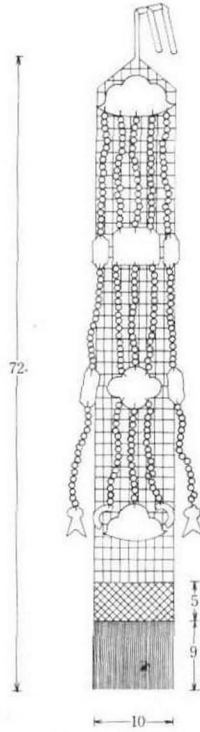
(圖26-1 蔽膝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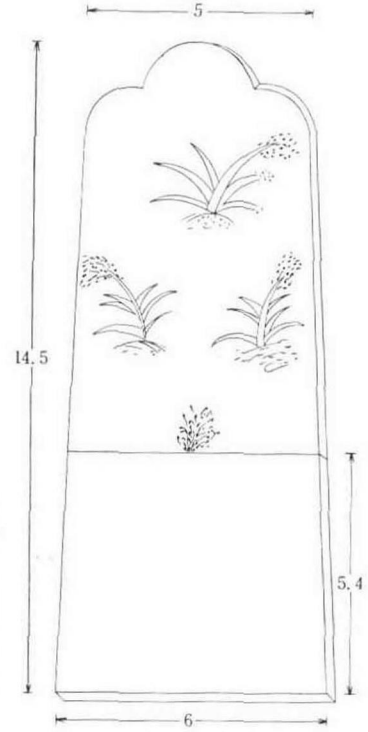
(圖6-1 大帶·後綬製圖)



(圖27-1 大帶·綬 製圖)



(圖29-1 佩玉)



(圖37-1 玉圭)

에適用되었다. 이는明制의翟衣制度로回歸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九、東京國立博物館에所藏되어 있는翟衣의構成을 살펴본 결과大部分高宗朝의翟衣制度에符合되나冠의制度는施行되지 않고(大明會典)을根據한文獻上の準據에不過했던 것으로 본다.  
 위冠을 제외한一切의附屬品과翟衣가 원형대로保存되어 있는 것은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한가지의문점은翟衣材質의織組時期와場所의 문제이다.朝鮮時代 왕의衣服과宮中에서 쓰이던 일용품을관장하던 관청인尙衣院을高宗三二年(一八九五)에尙衣司로 고치고光武九年(一九〇五)에 다시尙方司로 고쳐宮中の衣裳에 관한 일을말아보도록 하였는데 아마도 이尙方司에서織組한 것이 아닌가 한다.

〔註〕

- ① 增補文獻備考 卷七九 禮考二六 章服一。
- ② 高麗史 世家 卷四三 恭愍王 五「今賜王冠服 樂器陪臣冠服……皇后賜王妃冠服」
- ③ 增補文獻備考 卷七九 禮考二六 章服一。
- ④ 三國史記 卷三三 雜志二「至眞德王 在位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玄宗皇帝詔可之」
- ⑤ 增補文獻備考 卷七九 禮考二六 章服一。
- ⑥ 朝鮮王朝實錄 太宗三年 十月 辛未「明太祖 賜冕服……王妃 珠翠七翟冠 霞帔 金墜」
- ⑦ 增補文獻備考 卷七九。
- ⑧ 朝鮮王朝實錄 宣祖 三五年 七月 庚申。
- ⑨ 增補文獻備考 卷七九。
- ⑩ 國婚定例 卷一 王妃嘉禮。
- ⑪ 國朝五禮儀補 序例 卷一 吉禮 王妃禮服制度。
- ⑫ 朝鮮王朝實錄 正祖 二年 五月 乙卯。
- ⑬ 增補文獻備考 卷七九。